

#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들 - 황동규의 『외계인』 공간들

강진호 | 문학평론가, 성신여대 교수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감정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활력소가 여행이라면, 시는 나의 일상화되고 마모된 감각을 불현듯 일깨우며 변이를 일으키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밀하고도 특별한 여행이 된다. 그래서 시는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속성을 갖는다. 여행지에서의 낯선 풍경, 우수와 사건, 그리고 작고 의미 없는 듯한 사소한 순간들마저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장막극과도 같은 자신의 생을 이루는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가 빚어내는 신비로운 공간들

아무 일도 않고 며칠을 보낸다든가, 훌쩍 어디 다녀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나날들 속에서 달력에 촘촘히 메모된 일과를 들여다보다가 특, 시선을 떨어뜨린 지점에 한 권의 시집이 놓여 있다. 황동규의 『외계인』. 어쩌면 시집(시)은 도시적 일상에 갇혀 콘크리트처럼 굳어가는 진부한 삶에 '외계인' 처럼 불쑥 얼굴을 내미는 존재였다. 사실 시는 어디에나 있다. 단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력과 감각이 떨어져 잘 보이지 않고 둔감해진 것일 뿐. 그럼에도 드물게 규칙과 제도와 일상의 심연 저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감각들을 충동하는, 그래서 풍요롭고도 미묘한 감정의 무너를 심상에 그려 넣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 없지는 않다. 가령, 시집을 펼쳤다가 우연히 만난 다음과 같은 구절은 문득 생의 지리멸렬함과 반복성의 틈새를 불현듯 파고들면서 일상에 낯선 휘장을 드리우는 것이다.

어느샌가 내 생애는 이상한 여행들이 되어 있었다.

-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에서

1995년 자신의 일기에서 찢던 구절을 빌어 시의 부제로 달아놓은 시다. 여기서 '내 생애'는 물론 시인의 생애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왜 이상한 여행들인가. 반복되는 시간엔 진부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낯설게 느끼는 시인의 영혼이 있다. 시인이 만들어낸 비밀스런 세계가 시인의 생애를 이상한 여행들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생애'와 '이상함'과 '여행'이라는 세 개의 화소가 충돌하



면서 불러일으킨 기운이 시와 나라는 독자 사이에서 빚어내는 신비스런 작용에 있다. 어느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갈 한 개의 문장이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의미를 발하며 빛나는 충동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미루어 둔 일들이 겹치고 겹쳐 움 짝달작할 수 없을 때, 삶의 수레바퀴 밑에서 튕겨나가고 싶은 무명 독자의 숨은 욕망을 자극하고 시인이 경험한 세계의 휘장 안을 들치고 함께 걸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끌어내는 힘은 시를 읽는 독자 안에 있는 것인가. 시의 내부에 장착된 비밀스런 힘인가.

아마도 시 읽기는 이런 점에서 여행과도 닮은 점이 있다. 여행은 공간을 체험하고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감정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활력



원·오른쪽 | 서해의 바다. 도시적 감성과 일상에 젖은 이들에게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미지와 정서를 환기한다.

소가 여행이라면, 시는 나의 일상화되고 마도된 감각을 불현듯 일깨우며 변이를 일으키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밀하고도 특별한 여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는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속성을 갖는다.

### 공간이 보여주는 풍경들

집을 떠나 길을 나서면 차창 밖의 풍경, 하늘, 구름, 산에도 특별한 객회(客懷)가 머문다.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하고 나서 기억나는 것이라곤 꽃향기뿐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여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발길 가는 대로 이리저리 낯선 장소를 거닐며 처음 와 보는 도시나 산촌의 집들과 사람들의 얼굴만을 보고 온다고 해도 그 여행은 의미가 있다. 여행에서의 낯선 풍경, 우수와 사건, 그리고 작고 의미 없는 듯한 사소한 순간들마저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장막극과도 같은 자신의 생을 이루는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간 체험을 소재로 많은 작품이 씌어진 것은 이런 연유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

물오른 참나무 사이사이로 산벚꽃 나타날 때

더도 말고  
전라북도 진안군 한 자락을 한나절 걷는다면  
이 지상(地上)살이 원(願) 반쯤 풀 것으로 삼으리.

-「산벚꽃 나타날 때」에서

한나절 걷는 길, 장수 물과 무주 물이 흘러와 소리 죽이며 서로 몸을 섞는 죽도 근처 아니면 조금 아래 댐의 키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용담 근처에 이르렀을 때 쯤, 알맞게 데워진 공기의 숨결을 느낀다. 문득 새들은 몸을 떨면서 날아가고 길가에는 조팝꽃이 흐드러졌다. 그 순간 저 건너 물오른 참나무들 사이사이에서 구름처럼 펼쳐진 찬란한 산벚꽃 무리와 맞닥뜨린다. 그 순간의 숨막힘은 그간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단숨에 해소시키는 황홀경의 세계다. 여행 모티프와 공간 체험이 빚어내는 이런 매력이 있기에 그 황홀과 적막을 찾아 밤늦은 시각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거나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것이라.

객지에서 만난 공간은 단순히 사람을 황홀하게 또는 적막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내 존재를 전환시키는 초월의 경험 또한 제공한다.

오 빨리어,  
물결의 고향.  
우리 정신의 진한 곳. 하늘의 무르팍이여  
능쟁이 황발이 뜰창이 바카지  
걷다 보면  
머리 위 구름은 말없고  
꼬마 게들만 나를 알아보는 곳.

빨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에서

대천 부근 빨밭을 걷다가 능쟁이 황발이 뜰창이 바카지 온갖 쪼그만 게들을 다 만져 보고 왔으나 정작 빨 이름은 잊어버린다. 다만, ‘물결의 고향, 우리 정신의 진한 곳으로서의 빨 바위’에 앉아 ‘오 빨이어!’ 하고 부르짖는 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공간과 나의 일체감이 빨 이름과 더 불어나 자신까지 잊게 만드는 순간이다.

혼자 가도 좋고 몇이 가도 좋고, 몇 번 다시 가기도 하고 한 번 가면 그만인 그런 공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황동규의 시「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은 그런 공간을 추억하고 있다. 앞의 시에 등장한 ‘대천 부근의 빨밭’과 ‘울진군 소광리 길’ ‘정선군 가수리 길’ ‘안성군 청룡사 뒷길’이 그런 공간들이다. 그런 공간에서 시인은 문득 ‘외계인’이 되는 것이다. 도시적 감성과 일상에 젖은 시인에게 그런 공간은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미지와 정서를 환기한다. 그래서 시인은 눈 내린 새하얀 들판에 암호를 만들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주인처럼 봄밭에 무엇을 심을까 걱정해 보기도 한다. ‘소광리 길’은 자꾸 걸어도 길은 끝나지

않고 골짜기와 냇물만 남는 적막한 길로 시인의 영혼 속에 그려지고, ‘평창 미탄에서 정선읍 들어가기 전 가수리 길’에서 만난 강물은 마음의 지도에 ‘질탕한 곡선 하나를 그어’ 놓는다.

그 마지막 건들거림 끝나면  
강물이 사행(蛇行)하며  
마음속에 질탕한 곡선 하나를 그어주는 곳.  
마음이 몸 빠져나와 두어 길 높이로 떠서  
걸어오는 나를 보는 곳.

마음 빼앗기고  
일회용으로 건들거리며 걸어오는……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에서

가수리 길 입구 광하에서 버스를 내려 영월로 흘러가는 조양강 따라 걷는 길은 언덕마다 허연 밤꽃이고 마을마다 천궁 냄새가 자욱하다. 강 건너 중국 산수화에나 나올 법한 산들을 차례로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강물 끝에 이르는 여행의 공간에서 ‘나’는 마음이 ‘몸 빠져’ 나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자기 존재를 대상화하여 보게 되는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여행의 백미가 아닐까.

### 문명에 뒤덮인 또 다른 공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되었다. 하루를 보내면서 콘크리트 빌딩과 아스팔트가 없는 맨땅을 밟을 기회를 갖지 못하며, 불빛이 차단된 철축의 밤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른바 도시인, 문명인이 된 것이다. 문명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자연이란

미루어 둔 일들이 겹치고 겹쳐 움푹달싹할 수 없을 때, 삶의 수레바퀴 밑에서 튕겨나가고 싶은 무명 독자의 숨은 욕망을 자극하고 시인이 경험한 세계의 휘장 안을 들치고 함께 걸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끌어내는 힘은 시를 읽는 독자 안에 있는 것인가. 시의 내부에 장착된 비밀스런 힘인가.

한갓 개발의 대상일 뿐 결코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는 공간이 아니다. 문학 속에서 펼쳐지는 공간들 역시 같은 운명을 밟고 있다.

어도는 없었다. 이번에 어도에 가서 홀연히 알았다. 십 년 전 어도, 뇌세포 온통 파스텔 원색으로 물들이던 파란 보리밭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하늘에 흰 구름 딱 한 점 띄웠던 섬, 동력선 하나 활기 있게 헤엄치던 섬, 보리밭 뒤로 신록이 마음 조이게 박혀 있고 그 속에 종다리 몇 마리와 집 몇 채가 숨어 있던 섬, 영화 「안개」의 로케 장소 조그맣고 흰 교회당 앞을 지나면 꿈처럼 떠 있던 섬, 시화 방조제 쌓은 후 자동차가 길이었다.

- 「어도(漁島)」에서

우리는 지금 고향과도 같은 공간이 홀연히 사라진 시간대를 살고 있다. 『만세전』(염상섭)의 주인공 이인화가 동경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왜색 가옥과 풍습을 마주하고 경악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공간으로 진입하였다. 물론 앞으로 또 다른 공간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삶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공간이 과연 옛날의 그것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가?

모든 장소가 위치와 거리로 환원되고, 미터법과 평수로 측정되는 현대의 공간관, 대지 위에 놓인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등질적이고 추상적이며 수량적이고 연장적인 속성으로 파악되는 이러한 공간관은 근대 서구의 역사적 산물이다. 플라톤적인 3차원적 기하학의 추상적 공간은 미지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전통적 공간을 문명의 개발과 건설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생명 없는 물리적·기하학적 공간으로 환원시켜버렸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파괴와 건설의 반복된 시나리오는 인류의 공간 환경을 철저히 인공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실로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만들만큼 경이로운 '천지 창조'에 빗댄만한 어마어마한 위업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실로 짧은 순간에 우리의 생활환경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수천 년 동안이나 오래 지속되어온 역사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난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데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농촌적 환경, 자연의 대지 위에서는 살아가기 힘든 인종이 되고 말았다.

뉴질랜드에서 돌고래들이 집단으로 해변에 상륙  
모래에 머리 박고 잠자듯 자살한다.  
텔레비 화면 가득  
사라들이 편을 짜서 바다 쪽으로 내몰지만  
기쁘고 올라와 죽는다.  
돌고래가 육지에 오르는 건  
인간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지 않으랴.

- 「뉴질랜드에서 돌고래들이」에서

실제로 돌고래가 '자살'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자살'로 비쳐진다. 자살이라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환경과 공간이 자연에서 비자연으로 변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돌고래의 자살이란 어쩌면 인간이 바다(자연의 바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반자연과도 같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시인이 어느 날 십년 만에 찾아간 '어도' 또한 더 이상 예전의 어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도는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인은 계속 어도를 찾고 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스산하고 쓸쓸하고 허술한 풍경 속에 드리워진 어도의 과거와 현재이다. 또한 우리의 머리 위를 소리 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그림자'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일찍이 벤야민이 말한 아우리(aura) 체험과도 같다. 아우리는 유일한 원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이 복제되는 작품에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아우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다. 아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우리의 몰락은 예술의 몰락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시작이기도 하다. 인공과 모작으로 둘러싸인 현실에서 아우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어느 오후 인간들이 때로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면,  
아 바다!  
저 헤엄치는 섬들, 장난감 같은 배들,



방책이 무너지고  
벗겨진 신발 여기저기 튀어 날며  
시간이 터진다면!

- 「뉴질랜드에서 돌고래들이」에서

관촌마을의 풍경.  
여행지에서의 낯선 풍경과  
작고 의미 없는 듯한  
사소한 순간들마저 어느  
순간에는 정막극과도 같은  
자신의 생을 이루는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돌고래들의 자살'을 시인은 '시간이 터지'는 인간의 사건으로 바꿔놓는다. 그것은 '자살'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터지'는 것으로 치환되어 결코 불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들이 때로 바다를 향해 달려' 감으로써 헤엄치는 섬들과 장난감 같은 배들과 함께 단히고 응고된 시간을 터뜨리는, 새로운 비약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 곧 재생과 충전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 공간 속에서는, 모

아우라는 인간의 경험과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우라의 몰락은 예술의 몰락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시작이기도 하다. 인공과 모작으로 둘러싸인 현실에서 아우라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든 장소가 위치와 거리로 환원되는 현대의 공간관은 자취를 감추고 시공을 넘어선 주체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 시인이 꿈꾸는 공간

시인이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거의 공간을 찾고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지도에서 막 사라지려는 절 하나를 찾기 위해 소백산맥 남쪽 기슭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은 범상한 사람은 도무지 생각지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시인은 절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들른 시골 우체국에서 그 마음마저 내려놓고 편지를 쓴다.

지도에서 막 사라지려는 권상로(權相老) 현판의 절 하나 찾기 위해 소백산맥 남쪽 기슭을 오르내리다 잠시 전화 걸려고 들른 시골 우체국, 직원 하나가 하도 친절킬래 일부러 마음 내려놓고 편지를 쓴다. 오늘 날씨도 흐리려다 말았다. 모든 활엽수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시골 포장도로도 끼고 흐르는 개울엔 물이 기어다니는 흔적도 없다. (……)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단층 우체국이 그 자리에서 위로 떠오를 것 같다. 지그시 눈을 감는다. 그 직원과 우체국이 우주 영화 전광 속처럼 번쩍이며 사라지고 사방에 소백산맥에는 보이지 않던 설산(雪

山)들이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시골 우체국」에서

아마도 소백산맥에는 보이지 않던 설산들이란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산일 것이다. 그 마음의 눈은, 여행길에서 만난 부용꽃과 부처꽃 같은 사람들과 산길과 바람 속에서 행귀내고 맑아진 마음이 되살려낸 눈이다. 그 마음의 눈을 통해 비로소 내 안의 신성하고도 그윽한 영혼의 이미지로서의 흰 산을 떠올리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설산을 보기 위해 그렇듯 여행을 다니고 소백산맥 기슭을 오르내렸던 것은 아닐까. 사실은 문명의 공간 안에서 상실했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바깥수록 더욱 시에 매달리고 무의식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모두를  
어디선가 미리 본 것 같다  
-「어디선가 미리 본 것 같다」에서

이쯤에 이르자 여행을 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결국 여행이란 내가 잃어버린 '그곳'을 찾아가는 여행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곳, 그 공간이란 정서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원래, '공간(空間)'은 결코 비어 있는 '허공(虛空)'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구조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이다. 특정한 공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시선과 동선의 흐름을 제약하고, 우리의 신체를 특정한 느낌과 분위기 속에 가둬놓는다. 꼭 막힌 공간, 폐쇄적 공

간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옥죄고 속박한다면, 탁 트인 공간, 개방적 공간은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로움과 활력을 제공해 준다.

문학은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가령, 유치환의 「깃발」에는 통영 앞바다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 담겨 있다. 왜 유치환은 깃발을 두고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혼드는 /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이라고 했으며,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고 했을까.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산 시인의 상상력은 저 푸른 바다를 끝내 닿을 수 없는 이상향으로 삼지 않았을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작가의 고향인 통영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작품 첫머리에 제시된 통영에 대한 소개와 사투리는 이 작품의 토속적 정감과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론 작가 박경리가 성장한 공간과 시간을 독특한 방법으로 구성한 것이다. 작중의 김 약국 일가의 흥망이 '바다'와 연결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무튼, 우리의 안에는 아주 오래전에 떠나왔지만 근원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곳'에 대한 그리움이 늘 출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의 잃어버린 공간을 찾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지도 모르겠다.

###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길

우리는 세상에 대한 동경과 무한한 찬탄으로 빛나던 요람기와 유년기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와 있다. 한 때 시인이기를 꿈꾸었고, 한때 문학 소년이었다던 나의 내면 풍경은 사막처럼 황량하고 건조해져 시(詩) 한 그루 피워 올리기도 쉽지 않은 불모지처럼 변

해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음 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낯선 바람 냄새에 전율을 느끼고,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늘 그리움과 설렘으로 품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자그마한 숨을 쉬고 있다.

세상 갈수록 캄캄해  
머칠내 허방다리 피해 발끝만 보고 다니다가  
마음먹고 언덕에 올라 큰대(大)자로 누워도  
마음 계속 팔다리 웅크린 형상일 때  
홀쩍이듯 간간히 몸 뒤척일 때  
속삭이는 소리  
그게 태어나기 전 바로 네 모습이다.  
속삭이는 소리

-「꽃 들」에서

그렇기에 가끔은 시가 들려주는 풍경소리에 슬며시 끌려가 볼 일이다. 운이 좋으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소년이 불현듯 눈을 뜨고 세계를 처음 발견하는 듯 호기심에 가득한 눈을 번쩍이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 생의 진부함을 견어내고 이 세계의 낯선 속살을 훑쳐볼 친진스런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화석처럼 굳어 있던 것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만 있어도 족하다. 우연히 떠난 여행지에서 빛과 생명과 자연이 충만한, 살아 숨 쉬는 어떤 실체를 체험하면서 그 실체와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족하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찬란한 산벚꽃 무리라도 만나게 된다면 혹, 아는가. 이 지상살이의 원이 반쯤 풀릴지. 🌈